

[성주간] 주님수난 성금요일 주님수난예식

수난복음

(해설자) 요한 18, 1 - 19, 42



요 한 이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 리 스 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(해설자)



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는 제 자 들 과 함 께 키 드 롬 골 짜 기 건 너 편 으 로 가 셧 다.



거 기 에 정 원 이 하 나 있 었 는 데 제 자 들 과 함 께 그 곳 에 들 어 가 셧 다.



예 수 님 께 서 제 자 들 과 함 께 여 러 번 거 기 에 모 이 셧 기 때 문 에,



그 분 을 팔 아 넘 길 유 다 도 그 곳 을 알 고 있 었 다. 그 래 서 유 다 는 군 대 와



함 께, 수 석 사 제 들 과 바 리 사 이 들 이 보 낸 성 전 경 비 병 들 을 데 리 고



그 리 로 갔 다. 그 들 은 등 불 과 헛 불 과 무 기 를 들 고 있 었 다.



예 수 님 께 서 는 당 신 께 닥 쳐 오 는 모 든 일 을 아 시 고 앞 으 로 나 서 시 며

(그리스도) (해설자)



그 들 에 게 물 으 셧 다. ["누 구 를 찾 느 냐?"] 그 들 이

(다른사람) (해설자)
대 답 하 였 다. ["나 자 렷 사 람 예 수 요."] 예 수 님 께 서 말 씀 하 셴 다.

(그리스도) (해설자)
["나 - 다."] 예 수 님 을 팔 아 념 길 유 다 도 그 들 과 함 께 서 있 었 다.

예 수 님 께 서 나 - 다" 하 실 때, 그 들 은 뒤 걸 음 치 다 가 땅 에 념 어 졌 다.

(그리스도) (해설자)
예 수 님 께 서 다 시 물 으 셴 다. ["누 구 를 찾 느 냐?"] 그 들 이

(다른사람) (해설자)
대 답 하 였 다. ["나 자 렷 사 람 예 수 요."] 예 수 님 께 서 말 씀

(그리스도)
하 셴 다. ["나 다. 하 지 않 았 느 냐? 너 희 가 나 를 찾 는 다 면 이 사 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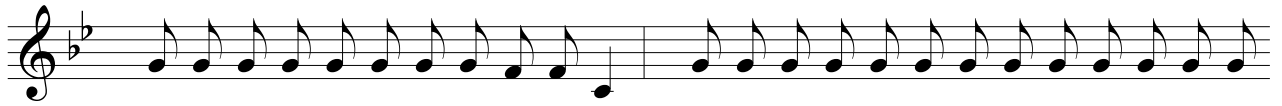
(해설자)
들 은 가 게 내 버 려 두 어 라."] 이 는 "아 버 지 께 서 저 에 게 주 신 사 람

들 가 운 데 하 나 도 앓 지 않 았 습 니 다." 하 고 당 신 께 서 전 에 하 신 말 씀

이 이 루 어 지 게 하 려 는 것 이 었 다. 그 때 에 시 몬 베 드 로 가 가 지



고 있던 칼을 뽑아, 대 사 제 의 종 을 내 리 쳐 오 른 쪽 귀 를 잘 라 버 렸 다.



그 종 의 이 름 은 말 코 스 였 다. 그 러 자 예 수 님 께 서 베 드 로 에 게



이 르 션 다. ["그 칼 을 칼 집 에 꽂 아 라. 아 버 지 께 서



나 에 게 주 신 이 잔 을 내 가 마 셔 야 하 지 않 겠 느 냐?"]



군 대 와 그 대 장 과 유 다 인 들 의 성 전 경 비 병 들 은 예 수 님 을 붙 잡 아 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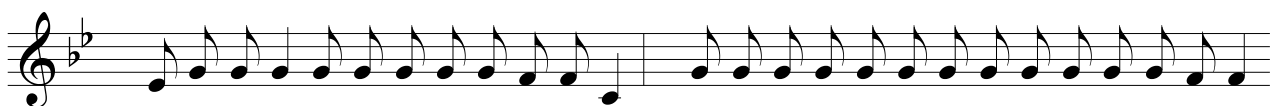
박 하 고, 먼 저 한 나 스 에 게 데 려 갔 다. 한 나 스 는 그 해 의 대 사 제



카 야 파 의 장 인 이 었 다. 카 야 파 는 백 성 을 위 하 여 한 사 람 이 죽 는 것 이



낫 다 고 유 다 인 들 에 게 충 고 한 자 다. 시 몬 베 드 로 와 또 다 른 제



자 하 나 가 예 수 님 을 따 라 갔 다. 그 제 자 는 대 사 제 와 아 는 사 이 여 서,



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. 베드로는 대문밖에



서 있었는데,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묻지기 하



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. 그때에 그 묻지기 하



(다른사람)

녀가 물었다. ["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?"]



(해설자)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. ["나는 아니오."] 날이 추워 종



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솥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쪼고 있었는데,



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쪼었다. 대사제는 예수님께



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. 예수님께서 그에게



(그리스도)

대답하셨다. ["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하



였다.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



가르쳤다.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. 그런데 왜 나에



게 묻느냐?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.



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."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,



결에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.



["대사제께 그 따위로 대답하느냐?"]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



["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.



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?"]



한 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.



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쪼고 있었다.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.



["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운데 하나가 아니오?"] 베드로는 부인하였다.



["나는 아니오."] 대 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, 베드로가 귀를 잘



라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. ["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



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?"]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



하자 곧 닭이 울었다.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



총독관저로 끌고 갔다.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. 그들은 몸이



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, 총독관저안으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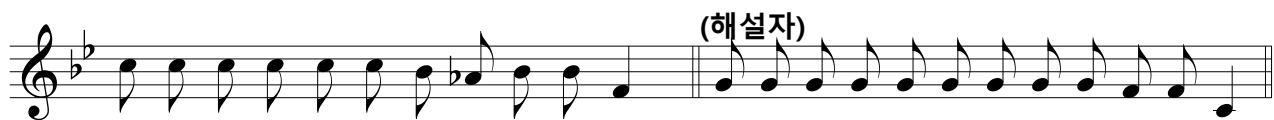
들어가지 않았다.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



물 었 다. ["무슨 일로 저 사 람 을 고 소 하 는 것 이오?"] 그 들 이 빌 라



도 에 게 대 답 하 였 다. ["저자 가 범 죄 자 가 아 니 라 면 우 리 가 총



독 께 넘 기 지 않 았 을 것 이오."]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말 하 였 다.



["여러 분 이 데 리 고 가 서 여 러 분 의 법 대 로 재 판 하 시오."]



그 러 자 유 다 인 들 이 말 하 였 다. ["우 리 는 누 구 를 죽 일 권 한 이 없소."]



이 는 예 수 님 께 서 당 신 이 어 땡 게 죽 임 을 당 할 것 인 지 가 리 키 며 하 신



말 씀 이 이 루 어 지 려 고 그 리 된 것 이 다. 그 리 하 여 빌 라 도 가 다 시



총 독 관 저 안 으 로 들 어 가 예 수 님 을 불 러 물 었 다. ["당 신 이 유 다 인



들 의 임 금 이 오?] 예 수 님 께 서 되 물 으 셸 다. ["그 것 은 네 생 각



으로 하는 말 이냐?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



것 이냐?"]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. ["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



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.



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?"]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.



["내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. 내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,



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.



그러나 내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."] 빌라도가 물었다.



["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?"]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.



["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.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



태어났으며,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. 진리에 속한 사람은



(해설자)

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."]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["진리가 무엇이오?"]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



(다른사람)

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 ["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



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.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



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. 내가 유대



(해설자)

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?"]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



(다른사람)

외쳤다. ["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주시오."]



(해설자)

바라빠는 강도였다.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



군사들에게 채찍질을하게 하였다.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



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, 그분께



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. ["유 다 인 들 의



임 금 님, 만 세!"]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. ["보시 오, 내 가



저 사 람 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. 내가 저 사람에게서



아무런 죄 몫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."]



이 욱 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



채 밖으로 나오셨다.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



["자, 이 사 람 이 오."] 그 때에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



예수님을 보고 외쳤다. ["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 십자가에



못 박으시오!"] 빌라도가 말하였다. ["여러분이 데려다가



십자가에 못 박으시오.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."]



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. ["우리에게는 율법



이 있소.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야 마땅하오. 자기가 하느



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."]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



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.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



예수님께 물었다. ["당신은 어디서 왔소?"] 예수님께서서는 아



무대답도 하지 않으셨다.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



["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 이 오? 나는 당신을 풀어 줄 권한도 있고



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 시오?"]



예수님께서 대답 하 셴다. ["네가 위로 부터 받지 않았 으면



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. 그러므로 나를



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."] 그때 부터 빌라도는 예수



님을 풀어 줄 방도를 찾 았다.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 쳤다.



["그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 오.



누구든지 자기가 임금 이 라고 자 처 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 항 하



는 것 이 오."]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 리고



나 가 리 토스 트로 토스 라고 하 는 곳 에 있 는 재 판 석 에 앉 았 다.



리 토스 트로 토스 는 히 브 리 말 로 가 빠 타 라 고 한 다. 그 날 은 파 스 카 축



제 준 비 일 이 었 고 때 는 낮 열 두 시 쯤 이 었 다. 빌 라 도 가 유 다 인



(다른사람)

들 에 게 말 하 였 다. ["보 시 오, 여 러 분 의 임 금 이 오."]



(해설자)

(회중)

그 러 자 유 다 인 들 이 외 쳤 다. ["없 애 버 리 시 오. 없 애 버 리 시 오.



(해설자)

그 를 십 자 가 에 못 박 으 시 오."]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물 었 다.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["여 러 분 의 임 금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라 는 말 이오?"] 수 석 사 제 들 이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대 답 하 였 다. ["우 리 임 - 금 은 황 제 뿐 이 오."] 그 리 하 여



빌 라 도 는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라 고 그 들 에 게 넘 겨 주 었



다.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.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



가를 지시고 '해골터'라는 곳으로 나가셨다. 그곳은 히브리 말



로 골고타라고 한다.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



박았다.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



이쪽저쪽에 하나씩 못박았다.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



에 달게 하였는데, 거기에는 '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'



라고 쓰여 있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기도 성에



서 가까웠기 때문에,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.



그것은 히브리 말, 라틴 말,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.



그 래 서 유 다 인 들 의 수 석 사 제 들 이 빌 라 도 에 게 말 하 였 다.



(다른사람)

["'유 다 인 들 의 임 금' 이 라 고 쓸 것 이 아 니 라, '나 는 유 다 인 들 의



(해설자)

임 금 이 다.하 고 저 자 가 말 하 였 다 고 쓰 시 오."] 빌 라 도 가 대 답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하 였 다. ["내 가 한 번 썼 으 면 그 만 이 오."] 군 사 들 은 예 수 님 을



십 자 가 에 못 박 고 나 서, 그 분 의 옷 을 가 저 다 가 네 뭉 으 로 나 누 어



저 마 다 한 뭉 썩 차 지 하 였 다. 속 옷 도 가 저 갔 는 데 그 것 은 솔 기



가 없 이 위 에 서 부 터 통 으 로 찢 것 이 었 다. 그 래 서 그 들 은 서 로 말



(다른사람)

하 였 다. ["이 것 은 찢 지 말 고 누 구 차 지 가 될 지 제 비 를 뽑 자."]



(해설자)

"그 들 이 제 옷 을 저 희 끼 리 나 누 어 가 지 고 제 속 옷 을 놓 고 서 는



제 비 를 뽑 았 습 니 다." 하 신 성 경 말 씀 이 이 루 어 지 려 고 그



리 된 것 이 다. 그 래 서 군 사 들 이 그 령 게 하 였 다. 예 수 님 의 십 자



가 곁 에 는 그 분 의 어 머 니 와 이 모, 클 로 파 스 의 아 내 마 리 아 와



마 리 아 막 달 레 나 가 서 있 었 다. 예 수 님 께 서 는 당 신 의 어 머 니 와



그 곁 에 선 사 랑 하 시 는 제 자 를 보 시 고, 어 머 니 에 게 말 씀 하 셧 다.



["여인 이 시 여, 이 사 람 이 어 머 니 의 아 들 입 니 다."] 이 어 서 그 제 자



에 게 말 씀 하 셧 다. ["이 분 이 네 어 머 니 시 다."] 그 때 부 터 그 제



자 가 그 분 을 자 기 집 에 모 셧 다. 그 뒤 에 이 미 모 든 일 이 다 이 루



어 졌 음 을 아 신 예 수 님 께 서 는 성 경 말 씀 이 이 루 어 지 게 하 시 려



고 말씀하셨다. ["목 마 르 다."] 거 기 에 는 신 포 도 주 가 가 득 담 긴



그릇 이 놓 여 있 었 다. 그 래 서 사 람 들 이 신 포 도 주 를 듬 뵈 적



신 해 면 을 우 슬 초 가 지 에 꽃 아 예 수 님 의 입 에 갓 다 대 었 다.



예 수 님 께 서 는 신 포 도 주 를 드 신 다 음 에 말 씀 하 셸 다.



["다 이 루 어 졌 다."] 이 어 서 고 개 를 숙 이 시 며 숨 을 거 두 셸 다.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.]



그 날 은 준 비 일 이 었 고 이 틀 날 안 식 일 은 큰 축 일 이 었 으 므 로,



유 다 인 들 은 안 식 일 에 시 신 이 십 자 가 에 매 달 려 있 지 않 게 하 려 고,



십 자 가 에 못 박 힌 이 들 의 다 리 를 부 러 뜨 리 고 시 신 을 치 우 게 하 라 고



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.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



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



뜨렸다.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



러뜨리는 대신,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



찔렀다.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. 이는 직접 본 사



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. 그리고 그는



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.



"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." 하신 성경 말씀



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. 또 다른 성경 구



절은 "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." 하고 말한다.



그 뒤에 아리마태아출신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



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.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



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. 빌라도가 허락



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. 언젠가 밤에 예



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리트



라 짚가지고 왔다.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



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,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.



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, 그 정원



에 는 아 직 아 무 도 문 힌 적 이 없 는 새 무 덤 이 있 었 다. 그 날 은 유



다 인 들 의 준 비 일 이 었 고 또 무 덤 이 가 까 이 있 었 으 므 - 로, 그



들 은 예 수 님 을 그 곳 에 모 셧 - 다.



주 님 의 말 - 씬 입 니 다. 그리 - - 스도 - 님 찬 미 합 니 다.